
금융산업
「미래전망과 경쟁도」
평가 계획

2020. 11. 25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금융산업의 현황과 대응과제	1
1. 국내 금융산업 현황	1
2. 변화하는 환경과 대응과제	2
(1) 고령화 · 저금리 · 저성장 시대의 도래	2
(2)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전환 및 경쟁가속화	3
(3) 규제환경의 변화	4
II.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계획	5
별첨1 업권별 세부 평가계획	7
별첨2 제1기 경쟁도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	11
별첨3 제2기 경쟁도 평가위원회 명단	12

I. 금융산업의 현황과 대응과제

1 국내 금융산업 현황

□ 지난 10년간 국내 금융산업은 외형적 성장을 지속

○ GDP중 금융·보험업 비중은 ('09년) 5% → ('19년) 5.6%로 증가

< 경제활동별 실질 GDP(한은 국민계정) >

(단위: 조원, %)

구 분	2009	2012	2015	2018	2019
국내총생산	1,335.7	1,514.7	1,658.0	1,812.0	1,848.9
· 금융·보험업	66.6	73.9	88.2	98.9	103.3
비중	4.98	4.88	5.32	5.46	5.59

○ 자본시장 시가총액도 글로벌 10위대로 성장

* 시가총액 규모(조달러): 1위 미국 36.3, 2위 중국 8.5, 12위 한국 1.5

○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175조원 + α의 자금공급을 추진하는 등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

□ 그러나, 국제경쟁력, 디지털혁신 등 질적 측면은 노력 필요

○ IMD 국가경쟁력* 평가 결과 금융부문은 63개국 중 34위

*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매년 평가. '20년 우리나라 종합평가결과는 23위

** 우리나라 금융부문 순위: ('14) 29 → ('16) 37 → ('18) 33 → ('19) 34 → ('20) 34

○ 국내 금융회사 PBR*이 빅테크 기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미래 성장전망이 밝지 않다는 평가 多

* '20.6월기준 주가순자산비율(주가/순자산): 4대은행 0.34, 보험사 0.27 vs 네이버 6.3

○ 국제금융센터지수('20.9월) 기준으로 서울은 25위, 부산은 40위에 그치는 등 주요 거점도시의 금융센터로서 역할도 미흡

○ 금융사고,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* 저하

* '19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(갤럽 조사 결과)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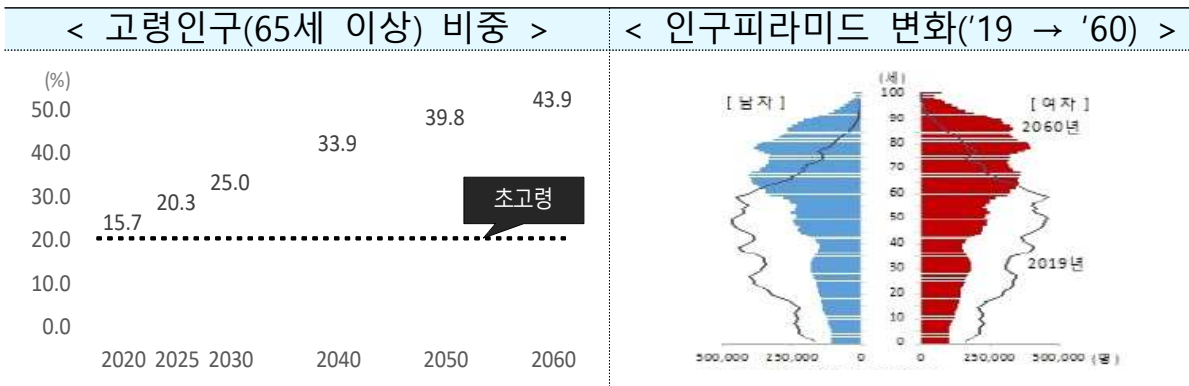
“금융회사 자체에 신뢰가 간다”에 대해: 동의하지 않는다 61%, 동의한다 39%

➡ 환경변화와 미래전망 등에 기초하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·영업관련 규제·관행을 개선할 필요

(1) 고령화 · 저금리 · 저성장 시대의 도래

◆ 고령화·저금리·저성장의 뉴노멀(new normal) 시대 도래

- (고령화) 우리나라의 경우 '25년에는 인구의 20%이상이 65세 이상인 “초고령화 시대”에 진입할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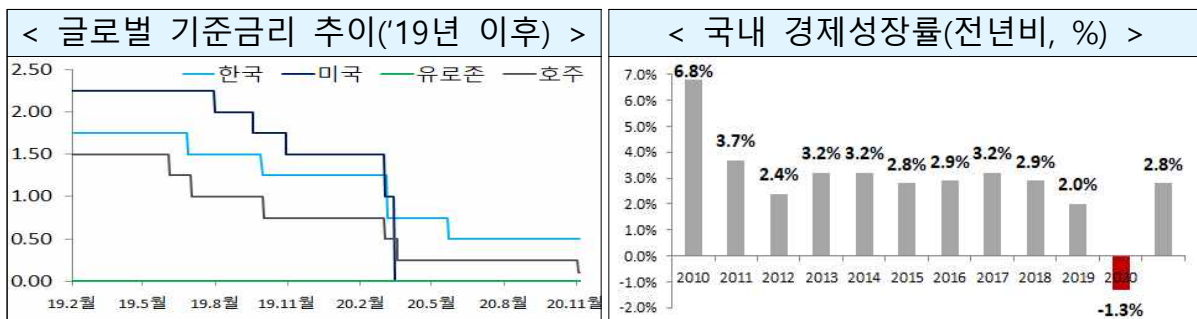
* 자료: 통계청, 「장래인구특별추계」

➡ 노후생활안정·건강·자산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·서비스와 공급채널 등을 확충

- (저금리) '10년대 이후 각국 기준금리는 하향 추세를 지속하다
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제로수준에 근접(한국 0.5%)

* 기준금리('20.11.5일 기준): 한국 0.5%, 미국 0~0.25%, 유로존 0%, 호주 0.1%

- (저성장) '11년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은 2~3%대를 유지하다
코로나19로 금년 마이너스(△1.3%), 내년 2%대 전망



* 자료: Bloomberg

* 자료: 한국은행, 금융연구원

➡ 저금리, 저성장 등 수익성 악화 요인에 대응한 경영혁신과 새로운 수익원 발굴 및 리스크 관리 강화

(2)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전환 및 경쟁 가속화

- ◆ AI,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핀테크, 빅테크 기업과 혁신적인 상품·서비스가 확산
- ◆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,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 간 경쟁이 심화

□ (사업자) 4차 산업혁명에 따라 AI, 빅데이터,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핀테크, 빅테크 기업이 증가

- ICT기업 등의 금융분야 진출이 확대되면서, 금융업·비금융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융합되는 빅블러(big blur) 현상 가속화

➡ 관련 규제체계 정비와 함께, 전통 금융업과 핀테크·빅테크 간의 제휴, 협업, 공정경쟁 방안을 고민

□ (서비스) 비대면 확산, 오픈뱅킹, 데이터 개방·이동* 등에 따라 혁신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자산이 쉽고 빠르게 이동 가능

* 데이터3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, 데이터의 결합·유통 확산 등

- '클릭 한번으로 고객 자산이 이동'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의 선택권과 편익이 증대
- 반면, 고객 자산 유치를 위한 금융회사의 경쟁 심화는 불가피
 - 자금과 데이터의 이동 규모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

➡ 소비자 편익 및 시장 효율성과 보안성 및 시장 안정성 등이 조화롭게 발전되도록 정책적 균형점 모색 필요

(3) 규제환경의 변화

- ◆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법·제도 정비 추진 중
- ◆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제도 변경전 혁신서비스 적극 도입

□ 디지털환경 변화 등에 따라 법·제도를 정비 중

- ① (은행) 인터넷전문은행법('19.1월)을 통해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설되었으며, 내년 상반기에 1개사가 추가 출현 예정
- ② (보험) 온라인 전문 보험회사 신규 인가('19.10월)에 이어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예정('21.5월)
- ③ (신용정보) 신용정보법 개정('20.8월)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 출현 기반*을 구축하고 신용조회업 세분화**

*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,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,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

** (기존) 신용조회업 → (개정) 개인CB, 개인사업자CB, 기업CB

- ④ (디지털금융) MyPayment,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및 이용자보호, 금융보안 강화 등을 담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 예정
- ⑤ (소비자보호) 금융소비자보호법('21.3월~)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기존 기관별 규제 → 기능별 규제 방식으로 전환

* 모든 금융상품(예금성, 투자성 등)의 판매, 대리·중개, 자문업자에 대해 6대 판매규제 (적합성, 적정성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금지, 부당권유금지, 광고규제) 규율

□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('19.4월~)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 변경·시행 前에도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중

- '20.11월까지 총 12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·시행
- 한편, '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'('19.9월)을 통해 금융회사의 출자대상 핀테크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

□ 혁신금융 지원, 코로나19 대응 위한 금융권 면책제도 전면 개편('20.4월)

➡ “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정비”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환경이 산업·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, 정책에 활용할 필요

Ⅱ. 금융산업 「미래전망과 경쟁도」 평가 계획

1 기본방향

- 국정과제로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
-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

2 주요 평가내용 세부내용 (별첨1)

- ① 금융산업의 **환경변화, 미래전망 분석** ⇒ **대응전략 모색**
- ② 금융업 밀집도, 수익성 등 **평가** ⇒ **진입요건 개선**
- ③ **규제·업무체계 적정성 검토** ⇒ **규제·영업행위 개선**

3 평가 일정

- 보험업(연내)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('21.上) → 은행·신용카드('21.下) 순서로 평가 진행 (필요시 평가대상 확대)

공통분석 사항

- ☐ 저출산·고령화, 저금리,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장래 수익성, 위험 등에 대해 분석
- ☐ 당기순이익, 자산규모 및 HHI지수* 등 계량적 지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, 경쟁환경 등에 대해 분석

* Herfindahl-Hirschman Index: 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(%)의 제곱 합으로 계산
⇒ 美 법무부, 공정위 등에서 시장집중도 판단시 활용

특화분석 사항

- 1 (보험업) 금융의 디지털·플랫폼화,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·발전 방안 검토
 -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·공정경쟁 촉진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
 - 헬스케어 서비스, 건강증진보험(건강 + 데이터 + 보험의 결합), 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분야 평가·전망
 - 소액단기전문 보험 활성화 및 새로운 라이선스제도* 등 검토

* (현행) 채널·상품 분리시 2라이선스 예외적 허용

② **(신용평가업)** 신용평가업의 신뢰도제고 및 효율적 서비스 공급 방안 검토

- 주요국 신용평가업 규제의 최근 동향 및 진입규제 실태 조사
-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·평가하는 한편, 인가 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

③ **(은행업)** 신규 사업자 출현 영향, 디지털시대 성장 동인 등 분석

- 핀테크, 빅테크 등 금융업 진출에 따른 향후 수익성 전망 및 은행·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
- 디지털,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(점포)의 합리적 운영전략 모색
 - * 오프라인 채널의 합리화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
-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 서비스 운영 실태*와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추가 진입 허용 필요성 등 검토
 - * 중금리 대출,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 등

④ **(신용카드업)** 신용카드사의 핵심 업무인 ① 결제사업과 ② 대출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쟁도 평가

- (결제사업) 결제사업분야의 전자금융업자 진출 및 카드사의 MyPayment,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 종합 검토
 - 적격비용의 재산정('21년 예정)을 통한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의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등도 분석
- (대출사업) 카드사 보유 고객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, 신규업무 허용방안 검토

가 보험업

- (업권현황) '20.6월 현재, 국내 55개 보험사(생보 24, 손보 31) 영업
 - 수입보험료 기준, 생명보험사는 '16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중이며, 손해보험사는 매년 2~3%대의 저성장세 유지
 - ※ 다만, 코로나19 특수성(손해율 감소 등), 저축성 보험 영업 개선 등으로 올해 수익은 개선
 - * 전년비 수익증가율(%), 1~3분기) 생보 3.1 / 손보 10.2
 - '19.10월 디지털 손보사 신규허가를 통해 영업 보험사 1개사 추가
- (규제체계) 보험업은 기본적으로 허가제도로 운영중이며, 금융의 디지털화 촉진위해 온라인 보험사에 대해 완화된 허가제* 운영
 - * (자본금) 일반 종합보험사 300억원 vs 온라인 종합보험사 200억원(2/3수준)
 - 소액단기 전문보험사 신설(자본금 요건 완화)가 신설(11.18일, 국회통과)

- (영업범위) 계약당 최대보험금이 일정수준(예 : 5천만원) 이하로 제한
 - (보험종목) 연금, 자동차, 보증, 재보험, 원자력, 간병 외 만기 1년이하 종목
 - (자본금 요건) 10억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
- (평가방안) 금융의 디지털화, 보험업 관련 규제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경쟁도 측면에서 분석하고 허가·규제 개선에 활용
 - ① 새로운 보험환경에 적합한 보험사 허가정책* 변화 필요성
 - * (현행) 1사 1라이선스 원칙 / 채널·상품 분리시 2라이선스 예외적 허용
 - * (검토방향) 보험상품 혁신, 자산·부채관리 및 사업구조 개편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, 1사1라이선스 정책의 개편 검토
 - ②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사 진입촉진과 함께 공정경쟁 방안 검토
 - ③ 온라인 보험,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진입 활성화 필요성 검토
 - ④ 헬스케어 서비스(부수업무 등) 및 자산관리 기능 강화
- (활용계획) 보험산업의 경쟁·혁신 촉진을 위해 인허가 제도 등 진입·영업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

나 신용평가업

□ (업권현황) '20.11월 현재, 4개 신용평가사가 영업 중

* 한국기업평가, 한국신용평가, NICE신용평가, 서울신용평가

○ 지난 20년간 신규 신용평가회사의 진입이 없는 상황*에서

* '00.1월 서울신용평가(舊 서울신용평가정보)에 ABS·CP 관련 신용평가업 진입을 허용한 이후 신규진입 無

○ 한국기업평가, 한국신용평가, NICE신용평가 3사의 균점체제 지속 ('19년 시장점유율: 한기평 33.8%, 한신평 32.5%, NICE 32.4%)

□ (규제체계) 신용평가업은 신뢰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만큼 '인가제'를 통해 엄격한 진입규제*를 운영

* 평가역량과 노하우(Know-how)를 갖추기 위해서는 장시간 소요되고,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감독의 어려움을 감안한 결과

○ 他 업권과 달리* 인가요건과 동일한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부과

* 은행·금투·보험·여전 등 주요업권은 인가요건 중 일부항목에 대해서만 유지의무를 부과하나, 신용평가업은 인가요건 전부에 대해 유지의무 부과하여 과도하다는 지적

□ (평가방안) 오랜 기간 소수회사 운영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신용평가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입규제의 개선 필요성 검토

①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경쟁도 진단·평가

② 주요국 신용평가업 규제 최근 동향 및 진입규제 조사

③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신용평가역량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진입규제 개선방안 검토

④ 他 업권과 비교 분석을 통한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 검토

□ (활용계획) 시장여건 판단 및 신용평가 품질 제고를 위한 진입규제 등 개선방안 마련

다 은행

- **(업권현황)** '20.10월말 현재 국내 은행은 19개사*가 영업 중
 - * 일반은행(시중은행6, 지방은행6, 인터넷전문은행2) + 특수은행5
 -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13.9조원 수준('19년 기준)으로 감소 추세
 - * ('18년) 15.6조원 → ('19년) 13.9조원(1~3분기) 12.1조원 → ('20.1~3분기) 10.3조원
 -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(ROA), 자기자본순이익률(ROE), 순이자마진(NIM) 등 수익성 지표들도 감소
 - * '18년말 대비 20.3Q 지표(%): (ROA) 0.63 → 0.47 (ROE) 8.04 → 6.27 (NIM) 1.67 → 1.40
- **(규제체계)** 신규 사업자 진입은 인가제로 운영 중이며, 일반 은행에 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일부 완화된 규제* 적용 중
 - * 예) 최저자본금: (일반은행) 1,000억원(단, 지방은행: 250억원) vs (인터넷은행) 250억원
 - 겸영·부수업무 운영절차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* 인정
 - * 예) 타 은행이 신고한 부수업무로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경우 등
- **(평가방안)** 은행산업 현황(환경, 규제) 및 규제(인가, 업무범위) 개선 필요성 진단
 - ① 핀테크 등 다양한 서비스 출현이 은행의 고객,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
 - ②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회사 대고객 소비 접점(채널) 운영전략 검토
 - * 지점운영 합리화방안, 금융회사의 플랫폼 진출 전략 등
 - ③ 지방은행의 디지털 발전전략 및 영업규제 등 개선 필요성
 - ④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 서비스 운영 실태*와 경쟁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허용 필요성 등 검토
 - * 중금리 대출,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 등
 - ⑤ 외국의 은행업 관련 인·허가 정책, 규제 현황 등 조사
- **(활용계획)** 은행업에 대한 신규사업자 진입 허용 여부 판단 및 향후 인가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

라 신용카드업

- **(업권현황)** 전업 8社, 겸영 13社(은행 11개, 유통 2개)가 영업 중
 - **(당기순이익)**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으로 '19년까지 감소하였으나, '20년에는 카드론 수익, 대손비용 절감 등으로 개선* 전망
 - * 추이: ('17) 2.2조원 → ('18) 1.7조원 → ('19) 1.6조원 → ('20.상) 1.1조원
 - **(연체율)** '20.上 1.38%로, 재난지원금, 원리금상환유예 효과 등으로 전년동기(1.61%) 대비 0.23%p 하락
 - * (신용판매) 0.75% 전년동기 比 0.11%p ↓ / (카드대출) 3.14% 전년동기 比 0.31%p ↓
 - **(자본적정성)** '20.上, 조정자기자본은 22.2%로 전년 比 0.9%p 하락, 레버리지배율은 5.0배로 전년 比 0.3배 증가하였으나 양호
 - * 조정자기자본비율: 경영지도 기준상 8% 이상 / 레버지리 비율 : 상한 6배
- **(규제체계)** 카드업 전업* 및 은행의 카드업 겸영은 허가제로 운영되며, 유통사의 카드업 겸영은 등록제로 운영
 - * 전업카드사 수 : ('08) 5개사 → ('09) 6개사 → ('11) 7개사 → ('13) 8개사
- **(평가방안)** 신용카드업의 경쟁도평가는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
 - ① 결제사업분야의 전자금융업자 진출 및 카드사의 MyPayment,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 종합 검토
 - ② 적격비용의 재산정(3년 주기)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의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, 영향력 분석
 - ③ 카드사 보유 고객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, 금융상품 분석·고객선택을 위한 신규업무 허용 등 추진
- **(활용계획)** 디지털혁신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업무범위 재조정, 지급결제시장의 재편가능성 대응 등에 활용

① 보험업 평가결과('18.9.21일)

- (평가결과) 대체로 경쟁시장이나, 일반 손해보험은 집중시장
 - 상품·채널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진입정책 및 일반 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
- (후속조치) 온라인 전문 손보사를 신규로 허가('19.10월)하고, 보험업법 개정('20.11월, 국회통과)을 통해 소액단기 보험업 도입

② 부동산신탁업 평가결과('18.9.21일)

- (평가결과)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수익성·건전성 측면에서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 필요
- (후속조치) 대신('19.7월), 신영, 한투('19.10월) 3개사 본인가 완료

③ 은행업 평가결과('18.11.30일)

- (평가결과) 경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·전문화된 은행 신규인가 고려
- (후속조치) 1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('19.12월), '21.상반기 본인가 예상

* (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경과) 케이뱅크('16.12월), 카카오뱅크('17.4월)

④ 증권업 평가결과('19.4.3일)

- (평가결과)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되나 혁신촉진의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한 진입규제 개선 검토
- (후속조치) 중소기업금융 중개전문 증권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(지난 국회 폐기 → 재입법 추진중)

⑤ 저축은행 경쟁도 평가결과('19.7.2일)

- (평가결과) 저축은행업 전체/영업구역별 시장집중도가 낮은 경쟁적인 시장으로 평가,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제고 미흡
- (후속조치)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립 및 경쟁 여건이 개선된 이후 신규인가 필요성 여부 검토

별첨 3

제2차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위원 구성(안)

	성명	현직	학력	주요경력	추천기관
1 (★)	한기정	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장	▶ 서울대 법학 학사 ▶ 캠브리지대학 박사	▶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▶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	금융위
2	전상경	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	▶ 서울대 영문학 학사 ▶ 오하이오주립대 경영학 석사 ▶ 뉴욕주립대 재무금융 박사	▶ (현)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▶ (현)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장 ▶ (전) 한국파생상품 학회 회장	금융위
3	이수진	금융연구원 연구위원	▶ 서울대 인류학·경제학 학사 ▶ 서울대 경제학 석사 ▶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	▶ (현)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 ▶ (전)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자문위원	한국금융 투자자 보호재단
4	최현경	산업연구원 연구위원	▶ 코넬대 경제학 박사	▶ 공정위 경쟁자문위원 ▶ 산업연구원 기업제도연구실장	공정거래 위원회
5	이효경	충남대 교수	▶ 한국외대 법학 학사 ▶ 오사카대 법학정치학 석사 ▶ 오사카대 법학정치학 박사	▶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▶ 법제처 법제자문관 ▶ 공정위 정책연구과제 심사위원	금감원
6	여은정	중앙대 경영학부 부교수	▶ 서울대 화공 학사 ▶ 서울대 화공 석사 ▶ 미시건대 경제학 박사	▶ (현)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위원 ▶ (현) 서울시 재정계획심의회 위원 ▶ (현) 기획재정 기금평가단 평가위원	한국은행
7	이기영	한국개발연구원 (KDI) 부연구위원	▶ 서울대 수학 학사 ▶ 컬럼비아대 경제학 석사 ▶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	▶ 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	예금 보험공사
8	윤민섭	한국금융투자자 보호재단 연구위원	▶ 성균관대 상사법 박사	▶ (현)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위원 ▶ (전) 소비자원 책임연구원	소비자원
9	오광욱	고려대학교 (세종캠퍼스) 부교수	▶ 고려대 경영학 학사 ▶ 고려대 경영학 석사 ▶ 고려대 경영학 박사	▶ 한국회계학회 상임이사 ▶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(무역조정·사업전환) ▶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, 세무사	중소기업 진흥공단
10	조혜진	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	▶ 서울대 소비자학 학사 ▶ 서울대 소비자학 석사 ▶ 서울대 소비자학 박사	▶ (현) 한국소비자학회, 한국금융 소비자학회 상임이사 ▶ (현) 서민금융진흥원 전문위원 ▶ (전) 금융위 금융교육/금융소비자 보호TF 전문위원	한국금융 소비자학회
11	하정림	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	▶ 서울대 법학과	▶ 사법고시 54회 ('12) ▶ (전)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▶ (현)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· 간편결제서비스 관련 법률 이슈 검토 · AI 활용 금융투자자의 적법여부 자문	대한상의
12	조성진	서울대 경제학부 교수	▶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학사 ▶ 예일대 경제학 석사 ▶ 예일대 경제학 박사	▶ (현)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준비위원장 겸 상임이사 ▶ (현) 한국응용경제학회 부회장 ▶ (전) 공정위 재신고 사건심사 위원회 위원	한국산업 조직학회